

[기획]

광주일보 제2기 독자위원회 7차 회의

광주일보 제 2기 독자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지난해 12월 21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1명 중 8명이 참석했다. 본사에서는 조정완 편집국 부국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08 광주일보에 바란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

들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화속에서 광주·전남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 목소리를 내줄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교육문제 등에 보다 깊이있는 보조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실용' 담은 기획물로 지역민에 실질 도움줬으면

■ 문병훈 (지역언론개혁연대 대표)



다양한 목소리 담아 새 정부에 과감하게 쓴소리를

■ 이묘숙 (주부·광주비엔날레 도슨트)



독자위원회의 지적 많이 개선 됐다 모든 사안 균형있게

■ 김재곤 (서정치과 원장)



취재·기획력 발휘 차상위계층 삶 집중적으로 보도를

■ 진원장 (조선대 미술대 학장)



올해 열리는 비엔날레 지역행사 뛰어 넘게 광주일보가 힘 보태야

새정부 출범 광주·전남 소외되지 않게 대변해달라

▲문병훈(지역언론개혁연대 대표)=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끈 10년 동안의 진보정권이 보수정권으로 교체됐고 여당은 야당이 됐다. 호남은 고립될 지 모른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역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사를 다뤄줘야 한다. '실용 주의'를 추구하라는 것이다.

▲이묘숙(주부·광주비엔날레 도슨트)=새해에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를 더 많이 발굴, 문제 제기와 정확한 진단을 이루려는 기획을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지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김재곤(서정치과 원장)=새해에는 우리 지역 저소득층,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위외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기동성과 취재력, 기획력을 발휘해 그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다뤄주기 바란다.

▲진원장(조선대 미술대 학장)=새해에는 비엔날레(9월5일~11월9일)가 열린다. 지난해 '신정아 가짜박사' 파문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의미가 크다. 광주 비엔날레가 '지역 행사'로 그쳤다는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이 그 어느때 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최희동(전남대 총동창회 사무총장)=의사 소통이 가능했던 지난 10년 동안에도 전락의 부재, 또는 정책 아이디어의 빈곤이라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에 관심을 가져주는데 힘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전략적 접근 방안을 마련,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역할도 더 중요해졌다. 지역민들의 요구 사항과 의견을 정확히 파악, 중앙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기획 시리즈를 다뤄줬으면 한다.

▲김경태(광주은행 홍보팀장)=새해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국 하계 올림픽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다. 이들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망하는 기사도 필요하다.

독자들이 쉽게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칼럼이나 기사를 늘려야 한다. 단순히 수치와 어려운 경제 용어를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라 독자가 경제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도록 쉽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영선(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부회장)=새 정권 들어 기존 교육 기초가 바뀔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들은 불안하고 교사들도 혼란스럽다. 대학 진학률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신심이 굳어 있었다. 언론이 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김중용(광주시 검도회 전무이사)=교육 기초가 바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전문성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대학을 목표로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양한 아이들의 자아의 능력, 재능에 맞춰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병훈=정권이 바뀌었으니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정부 정책에 대해 더욱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 쓴소리를 많이 해달라는 것이다. 각계의 독자 위원들을 늘려 의견 수렴을 더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을 담아 좋은 기획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묘숙=지난 한 해 독자위원회 지적 사항이 지면에 반영, 많이 개선됐다. 눈에 거슬리는 기사도 분명히 적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족한 면도 많다. 지역 신문인 만큼 중앙 일간지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해한다. 그렇다고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스포츠면에 실리는 골프 클럽의 경우 한 면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다루는 것 같다.

골프 외에 다른 종목들도 다뤄줄 필요가 있지 않나.

▲김재곤=호남 지역의 종아진 기업 여건, 노사 관계 등을 다뤄 호남 지역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의 기사도 필요하다. 새 정권에서 지방도 수도권 못지 않은 인프라를 마련,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역 언론이 해야 할 일이다.

▲진원장=새해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때 언론이 지역대학, 서울 및 수도권 대학과 연계해 문화 도시 조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줘야 한다. 지역민들이 중심에서 문화 중심 도시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최희동=오는 4·9 총선에서 중앙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선출할 수 있도록 언론이 지켜보고 독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지난 시대처럼 XX당이라면 무조건 찍어주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따져 볼 수 있도록 언론이 후보 필함을 살펴 알려줘야 한다. 제대로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정당이 후보를 공천할 때 참신한 새 인물을 발굴할 수 있도록 언론이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 알려주고 감시해야 한다.

▲김경태=새해에는 국내 경제가 어느 정도인지 시금 받는 본격적 무대가 될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많지만 세계 경제의 불안감도 공존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중국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나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다. 물가 상승 속에서도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경기의 혼돈 상태에서 독자들이 어떻게 해야 돈을 잘 굴릴 수 있는지 재테크 하는 방법도 상세히 소개해줬으면 한다.

▲김중용=새 정권의 공약 사항인 호남 운하만 다루는 것보다 광주전도 함께 다뤄줬으면 한다. 광주전 변화 사업은 얼마나 이뤄졌는지, 광주전이 언제쯤이면 청계천 같은 명소가 될 수 있는지 등도 짚어줬으면 한다. /정리=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최희동 (전남대 총동창회 사무총장)

지역민의 현안 요구 중앙정부 전달되게 시리즈 다뤄라



■ 김경태 (광주은행 홍보팀장)

독자 쉽게 이해하는 경제 칼럼·재테크 상세히 소개를



■ 이영선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부회장)

새 정부 교육기초 혼란스럽다 언론이 적극 나서야



■ 김중용 (광주시 검도회 전무이사)

광주전도 서울 청계천 같은 명소되게 앞장서라



일가공인중개사
☎(02)234-8216 월 011-608-0896
(광주우체국부근)
상가건물 매매
토지매매
전원주택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8949.co.kr)
목욕탕 임대 급히 구할
시의 농장부지 급히 구함
상가 건물 구매
수익성 좋은 원룸

국민공인중개사
☎011-635-7939, 010-3114-6103
(두암동 무릉도서관사거리 농협앞편 2층)
건물
정비 공장점 600P
임대용 그린빌트
골프연습장 부지 8,000P
정비공장 상고부지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법원앞에서 자산주유소쪽으로 70m) ☎(062) 236-2550
최고의 수익 물건 [공동투자] 하심분을 합칩니다.[50억 한도]
근린시설/원룸상당
아파트/빌라/상당
상가주택 상당